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6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 차례

1. 시절 인연  
순수한 모습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주세요  
부처님의 화장법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선의 정신 III
4. 법정 스님 잔소리  
수도자의 자세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V
6. 불일암 구석구석  
불일암 채마밭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새는 나에게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6월 1일 발행, 통권 316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71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1. 시절 인연

### 순수한 모순

6월을 장미의 계절이라고들 하던가. 그래 그런지, 얼마 전 가까이 있는 보육원엘 들렀더니 꽃가지마다 6월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었다. 몇 그루를 얻어다 우리 방 앞뜰에 심어 놓았다. 단조롭던 뜰에 생기가 돌았다.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노라면 모차르트의 청렬<sup>淸冽</sup> 같은 것이 옷깃에 스며들곤 했다. 산그늘이 내릴 때처럼 아늑한 즐거움이였다.

오늘 아침 첫 개화<sup>開花</sup>

마침내 우주의 신비가 열린 것이다. 생명의 신비 앞에 서니 가슴이 뛰려고 했다. 혼자서 보기가 아까웠다. 언젠가 접어 두었던 기억이 펼쳐졌다.

출판 일로 서울에 올라와 인국동 선학원<sup>禪學院</sup>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였다. 한 날 아침 삼청동에 있는 아는 스님한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속히 와 달라는 것이다. 무슨 일 이냐고 하니 와서 보면 알 테니 어서 오라는 것이었다. 그 길로 허둥지둥 직행, 거기 화단 가득히 양귀비가 피어 있었다.

그것은 경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발견이었다. 꽃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은 그때까지 정말 알지 못했었다. 가까이 서기조차 조심스러운 애처롭도록 연약한 꽃잎이며 안개가 서린 듯 몽롱한 잎새, 그리고 환상적인 그 즐기하며 나를 온통 사로잡아 버렸다. 아름다움이란 떨림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때부터 누가 무슨 꽃이 가장 아름답더냐고 간혹 소녀적인 물음을 해 오면 그 즉시 양귀비꽃이라고 대답을 한다. 이 대답처럼 분명하고 자신만만한 확답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절절한 체험이었기 때문이다. 하필 마약의 꽃 이냐고 핀잔을 받으면, 아름다움에는 마력<sup>魔力</sup>이 따르는 법이라고 응수를 한다. 뭘 안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장미꽃이 들으면 좀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해 여름 아침 비로소 찾아낸 아름다움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는 오늘 아침에 문을 연 장미꽃이 그 많은 꽃 가운데 하나일 수 없다. 꽃가게 같은 데 피어 있을 그런 장미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꽃에는 내 손길과 마음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생텍쥐페리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이다. 그건 내가 물을 주어 기른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 준 것이 그 장미꽃이니까.

흙 속에 묻힌 한 줄기 나무에서 빛깔과 향기를 지닌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이 ‘순수한 모순’이야말로 나의 왕국에서는 호외감이 되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법정 스님이 1970년에 쓴 글입니다. 흙 속에 묻힌 한 줄기 나무의 이름을 불러 주세요. 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보세요

6월의 선물은 미인이 되는 방법, 곧 부처님의 화장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문제없고 부작용이 전혀 없어 좋고 돈이나 시간이 없어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 법정 스님이 1980년에 써 두신 부처님의 화장법을 소개합니다.

### 부처님의 화장법

부처님이 메이크업,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은 우리에게 예뻐지는 법을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장법을 소개하겠다. 예뻐지는 법이다. 예뻐지려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첫째 화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항상 미소를 띤 온화한 얼굴이 피어난다.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새롭게 피어나는 이 탄생의 과정이 멈출 때 죽음이 문을 두드린다. 화낸 인간의 얼굴은 잔뜩 독이 오른 독사의 모습과 같다. 일기독심일수사신一起毒心一受蛇身이라는 말이 있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둘째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한다. 참선과 염불, 독경과 주력, 음식을 먹듯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앉는 자세부터 바르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된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다. 안정된 마음을 지니려면 될 수 있는 한 적게 갖고, 적게 보고, 적게 일하고, 적게 듣고, 적게 생각하라. 적게 하는 대신 하는 일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라. 이를 통해 본래의 자기 모습을 가꾸고 드러낼 수 있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셋째 탐욕스럽지 않아야 한다. 덕스러운 일을 함으로써,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이 피어난다. 탐욕스런 것은 엄마의 얼굴일 수 없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우리는 소유에 너무 집착한다. 아무개가 무슨 물건을 가진 걸 보면, 나도그걸 가져야만 직성이 풀린다. 소유란 무엇인가? 내일의 필요를 걱정하여 미리 쌓아두고 아끼고 지키고 있는 물건이다. 우리는 이것저것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연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수많은 가전제품을 보라.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의 생활은 속수무책이 된다. 또 우리는 옷을 너무 많이 걸치고 너무 많이 먹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본래의 건강과 평안을 잃고 있다.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치는 가난이나 마찬가지로 부덕이다.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더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칼릴 지브란은 그의 책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자랄까 봐 걱정하는 것이 곧 모자람이다. 집 안에 샘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목마를까 봐 두려워한다면 그 갈증은 영원히 채울 길이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 곧 그 값임, 곧 보상이고 싫은 마음으로 주는 사람은 그 싫은 마음이 곧 그 값임이다. 네가 아낄 만한 것이 무엇이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어느날엔가는 다 주어지고 말 것을. 그러므로 주라, 지금 곧 주라. 때를 놓쳐 뒷사람의 것이 되게 하지 말라. 또 너는 특히 ‘주고 싶지만 주어서 보람이 있는 사람에게’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수원의 나무는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목장의 짐승들도 그러지는 않는다. 그들은 제가 살려고 주는 것이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넷째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얼굴이 드러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식한 체 떠벌리지 않는다. 밖으로 내보이기보다 안으로 묵묵히 삭일 줄 안다. 사랑과 덕은 지혜에서 나오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 주고 푸근하게 감싸 주는 것은 지혜이지 지식이 아니다. 지식은 사람을 성급하고 참을성 없게 하지만 지혜는 참고 견딜 줄 알게 한다.

천천히 웃는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정결한 그의 속 뜻을 넘겨다볼 수 있다. 잔잔하게 웃는 얼굴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어 준다. 반대로 굳은 얼굴이나 찌푸린 얼굴은 우리들 삶의 뜰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살아가는 기쁨을 앗아 간다. 사람들에게 웃음과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구원이다. 웃음과 눈물을 통해 닫힌 밀실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얼굴, 좋은 얼굴이란 어떤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인가?

첫째로는 굳어진 얼굴이 아니라 항상 미소를 머금은 온화한 얼굴, 닫힌 얼굴이 아니라 활짝 열린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 좋은 얼굴이다. 둘째로는 탐욕에 들뜬 얼굴이 아니라 너그럽고 덕스런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 좋은 얼굴이다. 셋째로는 생각 없는 바보의 얼굴이 아니라 지혜로 빛나는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 좋은 얼굴이다. 이런 얼굴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러한 얼굴이 진정한 사람의 얼굴이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인연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맑고 덕스러운 얼굴이 되길 빌겠다.

###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 선의 정신 III

인도의 불교가 적어도 초기 불교의 경우, 인간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선은 현실의 인간을 무조건 긍정한다. 임제가 말한다.

“그대들은 잘못 알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경전이나 주석서를 이해하는 것을 대단히 여기지 않는다. 그대가 대통령이나 장관이라도 대단히 여기지 않는다. 폭포와 같은 말재주를 가졌더라도 대단히 여기지 않는다. 오로지 그대들의 진정한 견해, 곧 깨어 있는 정신만을 바랄 뿐이다.”

설명에 의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살아 있는 진리를 자기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려는 것이다.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려면 쳐다보지 말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워야 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기억하라.

보조 스님의 법어인 《수심결》을 보라. 마음 닦는 길이 여기 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부처를 찾으라.

부처란 곧 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려는가? 육신은 허망해서 생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 변하지도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부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법인 줄을 모르고 있다. 법을 저 멀리 지나간 성인들한테서만 구하려 하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알면 끝없는 법문과 한량없는 진리를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달마 스님과 혜가의 문답을 보자. 오늘날 우리가 달마에게 묻고 답한다고 생각하면 꼭 그렇다.

혜가/ 스님,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하오니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달마/ 그래? 어디 그럼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하게 해주마.

혜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무리 마음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네 마음이겠느냐? 이제 너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노라. 알겠느냐?

이때 혜가는 크게 깨닫는다.

달마 스님은 혜가에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선의 기능이요 그 정신이다.

선문답이 지식과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지혜의 계발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어떤 지방 장관이 과거의 고승의 영각을 들여다보다 말한다.

장관/ 이분이 누구십니까?

안내/ 이 절에 살다 돌아가신 고승입니다.

장관/ 그럼, 이 큰스님은 지금 어디 있지요?

안내인은 말문이 막혀 어쩔 줄을 모른다.

장관/ 이 절에 선을 닦는 이는 없습니까?

임제 스님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장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라고 청한다. 장관이 질문하자 선사는 큰 소리로 외친다.

선사/ 장관!

장관/ 예?

선사/ 어디 있는고?

이때 그 장관은 깨닫는다. 밖에서 찾지 말라.

질문은 지성적으로 전개되는데 답은 체험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적인 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을 일으켜 최후의 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을 멈추어야 해답이 나오기 시작한다. 입을 다물어야 자기 안에서 답이 들리기 시작한다.

답을 얻으려면 침묵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소음의 공해에 묻혀서는 답을 얻기 힘들다. 침묵이 드물기 때문이다.

어떤 학인이 선사에게 물었다.

학인/ 어떤 것이 해탈, 곧 자유입니까?

선사/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학인/ 어떤 것이 정토, 곧 청정한 세계입니까?

선사/ 누가 너를 더럽혔느냐?

이와 같이 선문답은 상대가 설정한 전제 조건을 거부하고, 절대 무전제의 경지로 물고 간다. 그것은 대개 일문일답으로 그친다. 그이상의 설명은 도리어 과잉 친절이기 때문이다.

선은 설명하거나 해설하는 등, 논리적인 전개를 거부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온 의문은 자기 자신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몰아세운다. 왜냐하면 답은 질문 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묻지 않고서는 해답을 꺼낼 수 없다.

좌선은 대인력의 범문이다. 살아 있는 불조佛祖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를 잊어버릴 때 모든 것은 비로소 자기가 된다.

진공묘유真空妙有

사람은 언제 어디서건 부분적인 자기가 아니라 전체인 자기 안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  
그것은 한 송이 꽃의 소리요  
한 가지 꽃의 모습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후회없이 거기서 빛나고 있다.

끝.

## 4. 법정 스님 잔소리

오늘 잔소리는 출가자에 대한 법정 스님의 다짐입니다. 그럼 스님 아닌 분들은 관계없을까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정신의 혼을 녹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스님에게만 필요할까요?

### 수도자의 자세

출가의 정신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자세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려면 아홉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하나. 마음의 갈등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내면의 악마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확고한 신념과 긍지를 지녀야 한다.

둘. 공동체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공동체란 곧 나의 복밭이다.

셋. 자신이 수도자로서 평생 받아 쓸 수 있는 복과 덕을 나날이 지어야 한다. 자신의 일에 스스로 길들일 것.

넷. 수도란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서 마쳐야 한다.

다섯.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고 일이 의무일 때 인생은 지옥이다. 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낙원과 지옥이 갈라진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수도다.

여섯. 소임에 충실한 사람이 충실한 수도자요 풍성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나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고 지속해야 한다. 삼매의 경지란 진짜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의 생각이 떠오른다. 일거리가 없는 것은 삶의 소재가 없다는 말이다.

일곱. 살 때는 삶에 철저히하여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히하여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생야전기 현사야전기(生也全機現死也全機現), 열 자를 기억하라.

여덟. 수도자에게 게으름은 최대의 악덕이다. 악덕은 습관과 함께 시작된다. 습관은 녹이다. 그것은 혼의 강철을 녹슬게 한다.

아홉. 역경을 극복하는 데서 잠재력이 일깨워지고 의지력이 굳어진다. 어려운 일을 해내면 부처처럼 존경을 받게 된다. 난행능행존중여불(難行能行 尊重如佛),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여덟 자를 기억하라.

##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IV

### 해안 마을에서 선주 비구를 만나다

선주 비구를 찾아가는 선재동자와 우리 일행은 소달구지에 몸을 싣고 남쪽으로 60일을 내려왔다. 능가로 가는 길가에 있는 해안 마을에 이르자 사방을 두루 살펴 선주 비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을 보니 그 비구가 허공에서 왔다 갔다 거니는데 수없이 많은 천신들이 공경해 그를 에워싸고는 하늘꽃을 뿌리면서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었다. 무수한 깃발들이 허공에 가득하도록 공양하고, 용왕들은 허공에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침수향 구름과 뇌성과 번개를 공양했다. 우리는 모두 환희심으로 합장 예배하였다. 선재동자가 말했다.

거룩한 분이시여, 말씀해 주소서.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부처님 친견을 버리지 않고 항상 그곳에서 부지런히 닦습니까?

보살을 버리지 않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선근善根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불법을 버리지 않고 다지혜로써 밝게 증득합니까?

큰 원을 버리지 않고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합니까?

보살이 어떻게 해야 중생의 행을 버리지 않고 모든 겁에 머물면서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세계를 버리지 않고 모든 세계를 두루 깨끗하게 장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힘을 버리지 않고 여래의 자유자재함을 다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유위有爲를 버리지 않고 또한 거기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모든 생사 윤회의 길에서 변화하듯이 생사를 받으면서 보살행을 닦을 수 있습니까?

보살이 어떻게 해야 법문 듣는 일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혜의 광명을 버리지 않고 삼세三世에서 지혜로 행할 곳에 두루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주 비구가 말했다.

장하다,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켰고 이제 또 마음을 일으켜 불법과 모든 지혜의 법과 자연의 법을 구하는구나. 나는 이미 보살의 걸림 없는 해탈문을 성취했으므로 오고 가고 다니고 그침에 따라서 생각하고 닦고 관찰해 곧 지혜의 광명을 얻었으니 끝까지 걸림이 없다.[구경무애究竟無礙]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중생의 생물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중생의 과거사를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중생의 미래사를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중생의 현재사를 아는 데 걸림이 없다.

중생의 말과 음성이 저마다 다름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 걸림이 없고, 중생의 기질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중생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 때를 따라 나아가는 데 걸림이 없다. 찰나와 밤낮의 시간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삼세의 바다에서 헤매는 차례를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이 몸으로 시방의 불국토에 이르는 데 걸림이 없다. 왜냐하면 머무름도, 짓는 일도 없는 신통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신통력을 얻었으므로 허공 중에서 다니고 머물고 앉고

높기도 하며, 숨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한 몸도 나타내고 여러 몸도 나타낸다. 장벽을 뚫고 나가기를 허공에서와 같이 하고, 공중에서 가부좌를 하고 자유롭게 다니기를 날아가는 새와 같이 하고, 땅속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을 밟고 기기를 땅 위에서와 같이 한다.

그러나 나는 다만 속히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데 걸림 없는 이 해탈문만을 알 뿐이다. 하지만 저 보살들은 대비계大悲戒와 바라밀계와 대승계, 보살의 도와 서로 응하는 계, 장애가 없는 계, 물러가지 않는 계,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를 지니고 있다. 또 항상 불법으로써 상대할 이를 위하는 계, 일체지一切智에 뜻을 두는 계, 허공 같은 계, 모든 세간에 의지함이 없는 계, 허물이 없는 계, 손해가 없는 계, 모자람이 없는 계, 섞임이 없는 계, 흐림이 없는 계, 뉘우침이 없는 계, 청정계, 티끌을 벗은 계, 때를 벗은 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공덕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말하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한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달리비다達里鼻茶다. 거기에 자재自在라는 성이 있고, 그 성안에 미가彌伽라는 이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어라.

선재동자와 우리 모두는 선주 비구의 발에 예배하고 물러 나와 달리비다국을 향해 여정을 이어 간다. 그곳에 가 미가를 찾은 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 반드시 알아내리라 다짐하면서.

## 6. 불일암 구석구석



사진 덕조

### 불일암 채마밭

불일암 아래채 앞마당은 밭이다. 6월은 봄과 이별하고 여름을 만나는 달이다. 해는 점점 높아지고 태양은 날을 다뒀 달아오른다. 그때 이곳엔 수행자가 있다. 옛날엔 법정 스님이 풀을 뽑았고 지금은 덕조 스님이 북을 돌운다. 불일암 여름 찬거리, 겨울 김장감이 모두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 수행자의 힘이 된다.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

국수에 올리는 고명, 상추 고추 썬것 오이도 모두 여기 출신이다. 여름 밭일은 고되다. 땀이 얼굴을 지나 목을 타고 내려간다. 자세히 보기 바란다. 후박나무 앞에 이랑을 짓고 썬 채마밭 여기저기에 작은 물방울이 보이는가? 오늘도 불일암 채마밭은 뜨겁게 고요하다. 툭툭 땀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요란할 뿐.

##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 새는 나에게

새는 나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나서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뒤에 숨어서도  
위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내가 힘들 때면  
언제나  
새를 부른다

산에서도 날아오고  
들에서도 날아오고  
내 마음 속에서도  
날아오는 희망의 새

새가 있어  
세상은 낯설지 않은  
나의 집이 되었다

##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법정 스님 새 책 《진리와 자유의 길》 출간

'맑고 향기롭게'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정 스님의 미발표 유고를 묶은 《진리와 자유의 길》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께서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1년 동안 송광사 수련원장을 맡으시며, 수련생을 위해 불교의 핵심 내용을 집필하고 강의할 때 쓰신 친필 원고입니다. 원고 작성 이후 35년 만에 처음 출간되는 이 책에서 법정 스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와 그 실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덕조 스님은 출간 의미를 "부처님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신타르타는 생로병사의 운명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자 진리의 길을 탐구했고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되신 뒤에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 출가한 뒤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했습니다. 스님의 무소유는 진리를 실천해 자유인으로 사는 한 방법이었고 이 책은 모든 이웃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법정 스님의 길라잡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불교 출현의 역사적 사실과 초기 불교의 특징, 보살행, 불교 교법을 친절하게 설명한 뒤 선의 역사와 사상, 좌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읽기 쉬운 책과 배우는 책이라는 두 가지 성격과 교양과 수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정 스님이 안 계신 지금, 맑고 향기롭게 회원과 길상사 신도, 나아가 불자들이 법정 스님을 그리워한다면 이런 가르침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의 인쇄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으로 사용되어 우리 사회를 더 맑고 더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 2021년 제2기 맑고 향기롭게 대학 장학생 선정

'맑고 향기롭게'는 지난해부터 대학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1차 서류 심사, 5월 9일 2차 면담 평가를 통해 최종 16명의 불자대학생을 선정하여 5월 30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본회 장학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더욱 크게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 수 있게 본회 활동 참여와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학생들이 열정과 지혜로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불교 인재로 성장하도록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롭게 '따뜻한 겨울나기 성북구청 표창장' 수상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에서 매년 연말 진행하는 김장 나눔 활동이 5월 3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연말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추진하는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주민과 지역 단체가 낸 성금과 성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앙 모임은 십시일반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20년 넘게 반찬을 나누고 명절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공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자비행을 제자 스님께서 계승하여 김치 한 포기라도 더 지역 사회에 나누고자 하는 실천 활동입니다. 후원하고 봉사해 주시는 회원님, 길상사 신도님께 감사드립니다.

#### 맑고 향기로운 가게 '나눔 공양 즉석밥' 판매 의미

사찰에서는 불법승 삼보(三寶)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물(供養物)을 올립니다. 육법 공양 중 음식과 곡식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씨앗이 크게 자라 삼계의 괴로움을 해탈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지역 사회복지관과 급식소에서 식사가 중단되면서 취약 계층은 당장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길상사에서 대중공양이 중단된 이후 공양미로 떡을 해서 복지관 및 결혼 가정에 나누고 있지만, 100% 소비가 어렵고, 소비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공양미를 대체하여 나눔 공양(즉석 현미, 잡곡밥)을 판매하여 불전에 헌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눔 공양은 부처님 전에 헌공 후 내려지면 쪽방, 노숙자, 장애인 등 식사를 하기 어려운 복지 취약 계층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에 불, 보살과 중생이 하나 되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2일(수)/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봉사자 교육 및 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모자 뜨기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우터: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년 봉사자 수시 모집

###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년 봉사자 수시 모집

###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일시: 5월 26일(수) / 장소: 극락전 / 영가 지못 접수 받습니다. 종무소에서 접수 후, 영단 옆 마련된 함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영가 지못은 막재 때 소전해 드립니다.

**관음재일** 일시: 6월 4일(금)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매달 관음재 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6월 5일(토) /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일시: 6월 10일(목)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6월 27일(일) /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6월 5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6월 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6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6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6월 27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지장전

\* 일요 가족 법회, 청년회 법회, 중·고등 법회, 어린이 법회, 새신도 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길상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달일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